

“월드컵 가자”

태극전사들 내달 7일 UAE전 앞두고 담금질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7일 아랍에미리트(UAE)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경기를 앞두고 국내서 마지막 훈련을 벌였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내달 3일 오만과 평가전을 시작으로 7일 UAE와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을 포함한 지역예선 3연전에 대비해 다양한 수비 조합을 실험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가벼운 조깅으로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40분간 스트레칭과 1대1 패스, 슈팅 연습으로 몸을 풀었고 7대7 미니게임으로 본격적인 훈련을 벌였다.

이근호(이와타)와 이영표(도르트문트), 이정수(교토), 김정우(성남), 조원희(위건) 등 7명이 조끼를 입고 한 조가 돼 축구장 절반만을 이용해 나머지 7명과 맞대결을 펼쳤다.

허정무 감독은 이번 게임을 통해 수비수 위치를 번갈아 바꿔가며 포백(4-back) 상황에서 최적의 수비 조합을 찾는 데 주력했다. 강민수(제주), 곽태휘(전남), 황재원(포

항) 등 대표팀 중앙수비수 자원이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하루 빨리 메우는 게 급선무였던 셈이다.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힌 192cm의 장신 수비수 김근환(요코하마)과 대표팀에 뽑히고도 부상으로 하차하는 불운을 겪어왔던 이강진(부산)은 허 감독에게서 눈도장을 받고 수비수 역할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허 감독은 조끼 입은 선수를 교체해 가며 여러 수비와 미드필드 조합을 실험했고 수비수들에게 커버 플레이를 주문하기도 했다.

허 감독은 1시간 30분 동안의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수비수에 변화가 많아 수비 위치에 변화를 주는 훈련에 초점을 뒀다”면서 “하루아침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컨디션과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점심 후 선수단에 오후 외출을 허용했다.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개인 준비물을 챙기고 이날 오후 9시30분까지 복귀해야 하는 대표팀은 30일 오후 UAE로 출국해 내달 7일 오전 1시15분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최종예선 6차전을 치른다.



“7월 로마세계선수권 우승 상심한 국민에 힘 보탬 것”

박태환 귀국

“중간 점검에서 좋은 기록이 나와 만족한다. 7월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심한 국민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이 6주간 진행된 2차 미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29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박태환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에 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새벽 5시에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했다.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박태환은 지난달 16일 출국

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데이브 살로 USC 수영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6주간 훈련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미국 전지훈련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우사마 벨룰리(튀니지)도 함께 훈련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 훈련하면서 소식을 접했다”며 “너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국민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환은 조만간 태릉선수촌에 합류, 로마 대회에 대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묵념하는 태극전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대표팀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소연 첫날 공동 2위 “감 좋네”

KLPGA 힐스테이트 1R

“지난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를 동안 잠만 잤어요”

지난 주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연장 9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우승한 유소연(19·하이마트)이 2주 연속 우승을 향해 점진했다.

유소연은 29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파72·6천619야드)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서울경제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5언더파 67타를 친 공동 선두 김혜림(20·텔코웨어), 문수영(25·엘프골프)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오른 유소연은 체력이 소진된 어려울 속에서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주 접전을 벌인 뒤 너무 힘들어 이를

동안 집에서 쉬었다는 유소연은 샷 감각을 잊지 않을 정도로만 연습했고 드라이버샷도 60%의 힘만 쳤다고 말했다.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쳤더니 오히려 성적이 좋았다”는 유소연은 13번홀(파3)과 15번홀(파4)에서 칩샷 실수로 보기를 적어내기도 했지만 절정의 퍼트 감각으로 타수를 줄였다.

유소연과 함께 이현주(21.동아회원권)가 4언더파 68타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윤채영(22·LG) 등이 공동 5위(3언더파 69타), 안선주(22·하이마트) 등이 공동 10위(2언더파 70타)에 자리해 우승경쟁에 뛰어 들었다.

한편 김하늘은 티샷이 크게 흔들려 7오버파 79타를 적어내 공동 89위로 밀렸다. 비영 때문에 몸상태가 좋지 않은 서희경은 공동 50위(3오버파 75타)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 30일(토)
 - ▲NHL 플레이오프 동부 결승 5차전 <캐롤라이나 : 피츠버그>(08 : 30·SBS스포츠)
 -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 6차전 <덴버 : LA레이커스>(10 : 00·MBCESPN)
 -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세이부>(13 : 50·SBS스포츠)
 - ▲K리그 <서울 : 광주>(20 : 30·KBSN SPORTS)

- ▲잉글리시 FA컵 결승전 <첼시 : 에버튼>(23 : 00·MBCESPN)
- 31일(일)
 - ▲프랑스 리그1 축구 <파리생제르맹 : AS 모나코>(03 : 50·KBSN SPORTS)
 - ▲PGA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3R(04 : 0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세이부>(12 : 50·SBS스포츠)
 - ▲힐스테이트 서울경제 오픈골프 최종라운드(14 : 00·KBS2)

생활 게시판

화촉

▲기원태(광주일보 광산주재·국경·장애속세 장남 령환군 신주철·김행선씨 장녀 옥주양=30일(토) 오후 1시 조선컨벤션웨딩홀 1층(춘추관)

▲오유순씨 차남 민동길(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군 김덕영·정숙자씨 삼녀 미송(나주공고 교사)양=30일(토) 오후 1시10분 조선컨벤션웨딩홀 1층(영빈관)

▲윤성철·김근자씨 장남 훈이군 양규성(광주시 동구 총무국장)·강영숙씨 삼녀 연경양=30일(토) 낮 12시20분 오페라하우스 1층(오페라 독실)

▲김남근((주)정창포장 대표)·김순영씨 차남 세욱(영풍문고)군 정경호·김종숙씨 장녀 미현양=30일(토) 낮 12시 40분 상무트리컨벤션웨딩홀 2층(데이 지홀)

▲김정실·장강자씨 아들 달용군 김원욱(광주영어방송 사장)·정숙이씨 차녀 지영양=31일(일) 낮 12시30분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부음

▲조보현씨 별세 이인범·유경·덕경·은경·시경·자경·진경씨 모친상=발인 30일(토) 그린장례식장 11분향소. 062-250-4411.

31일(일) 나라장례식장 202분향실. 062-670-4444.

▲민영송씨 별세 성권·권식·미경·미람씨 부친상=발인 31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김중희씨 별세 봉안·봉호·선남·선미씨 부친상=발인 31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삼여씨 별세 이주식·미식·원식·복례·숙례·미자씨 모친상=발인 31일(일) 나라장례식장 401분향실. 062-670-4444.

▲박판근씨 별세 상만·상삼·성금·충금씨 부친상=발인 31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김장천씨 별세 광선·균선·중선·정선·정애씨 부친상=발인 31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김중원씨 별세 홍석·현석·귀석·정희씨 부친상=발인 30일(토)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조정훈씨 별세 봉익·홍익·형찬·희정·희숙·희자씨 부친상=발인 30(토)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7.

▲노준식씨 별세 홍수·길홍·연옥·정자씨 부친상=발인 30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1.

대한민국 대표 방송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www.nocutnews.com

060-600-1031

RADIO

COMET

STV